

# 롤러코스터 2차전지株 다시 주춤? 자동차株 요동에 '눈치게임' 지속

포스코엔텍·LG엔솔 급등락 지속  
테슬라, 5일간 오르다 2일간 하락  
"대규모 수주 전까지 변동성 클 것"  
에코프로비엠 투자의견 하향조정

고평가 논란으로 급락세를 타던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다 다시 주춤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국내 증시에서는 자동차주가 상승 기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던 만큼 2차전지주의 주가는 계속 요동칠 것으로 예측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엔텍 종목이 전장 대비 9.65% 급등했다. 하지만 25일 다시 전장보다 5.40% 하락하면서 주춤했다.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2일부터 24일까지 연속 상승하며 3일간 5.6% 가량 올랐지만 이날 0.34% 내렸다. 이외에도 삼성SDI(-1.96%), 포스코퓨처엠(-1.95%),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3.53%), 에코프로비엠(-1.02%) 등 2차전지 관련주가 전부 하락

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꺾인 모습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4.85% 상승하면서 188.87달러를 기록해 주목됐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현지 기준으로 23일과 24일에는 각각 1.64%, 1.54%씩 하락하며 주춤하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연결되는 양상이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주도 25일 각각 1.93%, 2.24%씩 내리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 움직임으로 2차전지주 반등 기대감이 올랐었지만 다시 예외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근거와 별개로 상반기 내내 지속된 주가 급등으로 피로감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대규모 수주나 신규 고객 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더라도 가파르게 성장해 온 만큼 급락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회복 단계로 들어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증권사들 역시 '과열 구간'이라는 평가와 투자의견 하향 등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의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률이 10%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적용 평가가치가 하향되는 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간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서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다"면서도 "연간 가파른 성장률과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세그먼트 확대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밸류 부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남성현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왼쪽부터)과 김영관 한국전력공사 총북본부장, 조경석 포스코 환경기획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 친환경 시멘트로 탄소중립 실천

한전과 '포스멘트' 활용 업무협약

포스코그룹이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저탄소 친환경 시멘트를 활용한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는 지난 24일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을 '포스멘트'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포스멘트(PosMent)는 포스코그룹이 자체 개발한 친환경 시멘트다. 석회석 대신 철강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고로슬래그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에 톤당 약 0.8톤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는 일반 시멘트보다 최대 60%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고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내에서 사용되는 일반 시멘트를 포스코그룹이 개발한 탄소저감 시멘트인 '포스멘트'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배전 분야 설비(맨홀, 기초대 등)에 포스멘트 적용 기술을 자문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포스멘트를 적용한 기기설비 기초대를 개발해 한전표준규격에서 포스멘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포스멘트용 수재슬래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력산업 분야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친환경 시멘트 '포스멘트' 사용을 확대해 에코(Eco)-챌린지(Challenge)를 추구하는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금투협, 국제 자본시장 이슈·동향 공유

ICSA 연차총회·국제컨퍼런스  
내달 18일부터 총 3일간 개최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ICSA 연차총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ICSA는 국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공동 정책 개발, 국제감독기구 정책제언,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협회들이 총 2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대륙별로 순차적 개최되는 ICSA 연차총회는 국제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금번 연차총회도 금융투자업계가 팬데믹과 기술혁신의 임계점에 직면한 이 시기에 맞서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글

로벌 파트너십 강화,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혁신 트렌드를 파악할 목적으로 적극 추진됐다.

연차총회 첫날과 둘째날은 ICSA 행정처리 등 ICSA 회원들만 참여하는 'Closed Session'으로 진행된다. 셋째 날인 6월 20일에는 '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라는 테마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뜻으로, 다양한 대내외 미래 위기요인에 맞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참여 주체자들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의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및 테크 혁명 ▲가상자산 시장 ▲선진 글로벌시장의 성공적인 모험자본 공급 체계 ▲거래플랫폼의 다각화 트렌드

(ATS, 내부주문집행, STO 등) ▲평생 소득·퇴직연금 중심의 글로벌 자산관리시장의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본회가 초빙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ICSA 연차총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입지를 널리 알리고 회원사의 글로벌 규제·상품·서비스 트렌드 파악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금융투자협회는 오랫동안 ICSA 사무국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이사회 국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ICSA 연차총회를 통해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해외진출과 국제 사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코스콤,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 설명회

ESG투자자문 등 23개 자문사 입점

코스콤이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자사가 운영 중인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Fundora)'의 서비스 확대와 제휴 서비스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지난 24일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 펀도라는 일반 투자자가 다수 투자자문사의 포트폴리오를 구독하고, 직접 투자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자문계약, 상품 주문까지 증권사로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현재 플레인바닐라, ESG투자자문, 골든트리투자자문 등 23개 우수 자문사가 입점해 펀드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로 구성된 37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서비스하고 있다.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의 계좌를 자문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계증권사는 지속 확대 중이다. 투자자문사 대상으로는 다수 고객과의 자문계약 통합관리 및 포트폴리오 자동 리밸런싱 등이 가능한 백오피스 기능을 제공 중이다.

/신하은 기자

## 신한자산운용, SOL 소부장 ETF 15배 성장

상장 한달만의 성과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인 'SOL 소부장 ETF'가 상장 한달 만에 15배 규모로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각각 80억 원으로 상장한 'SOL 반도체 소부장 Fn' ETF와 'SOL 2차전지 소부장 Fn' ETF는 24일 기준으로 상장 한달 만에 각각 순자산 791억 원, 1584억 원의 규모로 성장, 총 2375억 원을 기록했다.

SOL 소부장 ETF가 상장한 4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약 한달 간 개인투자

자의 순매수 금액을 살펴보면 SOL 2차전지 소부장 Fn ETF가 1070억원으로 전체 1위, SOL 반도체 소부장 Fn ETF에 201억원으로 전체 6위를 기록하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변동성 장세에서 레버리지·인버스와 채권형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SOL 소부장 ETF는 개인투자자가 높은 관심을 보인 유일한 주식 테마형 상품이었다"며 "ETF 시장의 주요 테마인 반도체와 2차전지를 선별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해 세분화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 GS건설 '운정자이 시그니처' 988가구 분양

내달 5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청약

GS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사진)' 74~134㎡, 98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

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단지는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6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 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규성 기자 peace@